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국미*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온타리오주)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2017. 7. 9(일) ~ 7. 30(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제가 파견된 대학은 캐나다 수세인트마리에 있는 알고마 대학이었습니다. 수세인트마리는 토론토에서 비행기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세인트마리는 미국 국경과 붙어 있는 지역이라 강 건너편에 미국이 보일 정도로 미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알고마 대학은 건물도 크고 시설도 깨끗했으며, 체육관도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야외에 테라스가 있어서 날씨가 좋았던 날은 테라스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저희가 파견된 기간이 학교 방학 기간이라 유학생들 밖에 없어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매일 만나는 유학생들이 똑같다 보니 나중에는 그 유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저희가 파견된 기간에 저희처럼 단기로 온 유학생들이 많아서 저희는 처음 간 날 테스트를 통해서 두 반으로 나뉘서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Grammar, Public Speaking and Technology,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Reading입니다. 이 네 수업 모든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셨었습니다. 수업 방식은 전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배운 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칠판에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적으면서 복습했고, 자주 들었던 수업 3개에서는 마지막에 테스트를 봐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테스트는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Grammar는 3번의 문법 시험이 있었고, Public Speaking and Technology에서는 피피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고, Pronunciation and Vocabulary는 문장 5개 정도 외워서 발표하는 것이었</p>

	<p>습니다. 모든 시험 모두 수업시간에 충분히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해주셨던 선생님들은 모두 항상 열정이 넘치셨고, 저희가 지루해 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수업 외에 진행되었던 Activity는 딸기농장체험, 알고마 전통 춤 배우기, 지역축제참여, 피아노 콘서트, 비행기박물관 견학, Lake Superior 캠핑, 요양원 봉사활동, Youth camp 봉사활동이 있습니다.</p> <p>제일 먼저 딸기농장체험은 실제 딸기농장에 가서 딸기를 따보는 체험이었습니다. 딸기를 따서 무게 별로 돈을 지불하면 제가 딴 딸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p> <p>알고마 전통 춤 배우기는 Joseph island라는 곳에 가서 지역 사람들과 같이 춤을 배우면서 추는 활동입니다. 이때 지역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p> <p>지역축제 참여와 봉사활동은 Color Blast라는 우리나라의 컬러 런과 비슷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다 같이 참여해서 노는 것과 아이들 머리를 따주는 활동을 했습니다.</p> <p>피아노 콘서트는 저희가 간 기간 중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콘서트 날짜와 맞아서 가고 싶은 사람은 학교 측에서 티켓을 구매해줘서 저녁에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p> <p>비행기박물관 견학은 안에서 3D 영상도 관람할 수 있고, 다양한 비행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p> <p>Lake Superior 캠핑은 Agawa Rock을 먼저 보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 같이 간 학생 중 한명의 홈스테이 가족의 캠핑장을 갔습니다. 가서 사우나도 즐기고 앞에 바로 Lake Superior가 있어서 물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p> <p>요양원과 Youth camp 봉사활동은 무궁화 접기, 태극기 모자이크 등의 활동을 가르쳐드리고 저희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현지 날씨는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온도이며 전혀 습하지 않았습니다. 제</p>

	<p>일 더워도 27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며, 햇빛이 다소 강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바람이 불어 시원했습니다. 햇빛이 강하다고 해도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항상 얇은 외투를 입고 있거나 얇은 긴팔을 입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후드 집업이나 얇은 외투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저희가 갔던 지역은 거의 10시가 다돼서야 해가 지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해가 지면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보통 해가지기 전에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10시 넘어서 끝나는 활동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들이 차로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늦게 끝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가 배정되었던 홈스테이에는 일본인 유학생, 콜롬비아 유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집이 커서 화장실도 저랑 일본인 유학생만 쓰고, 홈스테이 부부는 자신들 방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콜롬비아 유학생들도 따로 둘이서 사용했습니다. 방은 침대도 엄청 컸고, 화장대도 있고, 수납장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 보니 집에서 긴팔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항상 홈스테이 집에서 먹었는데 아침은 각자 챙겨먹는 거라 씨리얼 먹거나 빵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챙겨가야 하는 거라 전날 저녁에 먹은 음식 남은 걸 싸가거나 홈스테이 엄마가 미리 냉장고에 준비해놓은 음식들을 챙겨가기만 했습니다. 저녁은 첫째 주에는 가족들과 친해지려고 집에서 주로 먹었고, 나중에는 친구들과 밖에서 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은 버스 타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는 평일에는 30분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버스타고 10~15분 정도면 학교에 도착했고,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 다녔습니다. 평일이어도 7시 이후에는 1시간에 한 대 밖에 없고, 일요일에는 항상 1시간에 1대 밖에 없어서 시간을 유의해서 다녀야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30,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779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 구입	53,800	
환전	418,900	캐나다 달러 500
합계	2,334,779	총 비용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 반팔도 가져가긴 가져가되 얇은 긴팔을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학교에서도 계속 에어컨을 틀어주기 때문에 반팔만 입고 있으면 춥습니다.
-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모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모기 물렸을 때의 바르는 약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에서 음식을 가져가면 가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컵라면, 김, 고추장 등) 현지에서 우리나라 컵라면을 팔긴 파는데 여러 곳에서 많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 힘듭니다.
- 학교나 집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기는 하는데 밖에 돌아다닐 때 데이터를 걱정 없이 편하게 쓰려면 유심을 사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밖에서 홈스테이 가족과 연락해야 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간다고 하던지, 가족과 만나서 들어갈 경우)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 수세인트마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알고마 대학 선생님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이 공항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하고 저희를 한명씩 배정된 홈스테이 가족들한테 데려다 주고 했을 땐 정말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하고 낯설고 어색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가족들과 친해지고, 우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도 친해지니 너무 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지냈던 홈스테이에서는 따로 지켜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저녁을 먹고 들어올 경우에만 미리 연락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저에게 이 집이 너의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 해주시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는

주로 홈스테이 가족과 대화하려고 거실에 나와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예능 같은 것을 봤습니다. 돌아오기 몇일 전에는 저를 미국에 데려가주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피아노 콘서트, 볼링장 등 스케줄에 없었던 활동들이 기회가 되면 저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습니다. 비용 같은 것들도 다 학교에서 지불을 해줘서 저희가 따로 내는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영어 실력이 엄청 향상 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는 처음에 지원하게 된 이유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주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목표는 이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항상 영어가 들리고 말도 영어로 해야 하다 보니 영어회화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리게 말하면 고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헛설수설해도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도 보고, 학교 수업,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로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것 같았던 3주라는 시간이 너무 훑 지나가서 돌아올 때는 너무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딸기 농장 갔을 때 일본인 친구들과</p>	<p>지역축제 중 Color Blast에 참여한 사진</p>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고 Speak Easy에서



다른 친구 홈스테이 집에 초대 받아서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Lake Superior에서



미국 Mackinac Island에서